

광주시, AI스타트업 성장의 길 연다

투자유치설명회 '파트너십 데이' 기업 11개사·투자사 40곳 참가 IR피칭·투자상담회 등 열여 8차례 설명회 470억원 투자 유치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유니콘 기업 도약을 돕기 위한 'AI파트너십 데이'를 진행해 투자유치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3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29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AI 기업의 투자유치설명회(IR)인 'AI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했다.

'AI파트너십 데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중 하나로, 유망 AI 스타트업과 사

업모델을 투자자에게 소개하고 매칭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행사에는 헬스케어, 바이오, 핀테크, 콘텐츠 분야에서 AI기술 기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린다에이아이㈜, 미어제트, ㈜메디아이플러스, ㈜블루캡술, ㈜세이프모션, ㈜스마디안, ㈜아리사코리아, ㈜엑스알에이아이, ㈜엔서, ㈜위시, 코넥시오에이치㈜ 등 창업 7년 미만 11개 기업이 참여해 사업모델과 기업의 미래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 11개 AI스타트업은 이번 행사 참여를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사업 모델의 검증 및 개선을 위한 컨설팅, 투자유치 멘토링 등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디터엔인베스트먼트', '코로프라넥스트코리아' 등 액셀러레이터(AC) 및 벤처캐피탈(VC) 투자사 40여곳이 참여해 11개 AI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협업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기도 했다.

2020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차례 진행한 'AI파트너십 데이'에는 69개 AI기업이 참여해 24개 기업이 47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투자사 관계자는 "AI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직접 투자를 추진하려 한다"면서 "이번 행사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들이 성장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 등이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많은 스타트업이 죽을 계곡이라 불리는 '데스밸리'를 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라며 "'AI파트너십 데이' 행사처럼 광주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AI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서구 1박 2일 가족캠프 교육 콘서트. 광주 서구는 지난 1~2일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에서 1박2일 가족캠프 형식의 명사초청 교육콘서트를 개최했다.

9월 독서의 달 다양한 독서문화 즐겨요

광주 22개 공공도서관 공연·전시 등 136개 프로그램

광주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펼쳐보자 책도, 꿈도'를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지역 22개 공공도서관은 9월 한 달간 강연 13개, 전시 23개, 공연 7개, 체험활동 93개 등 13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지난 1일 개관한 남구 효천어린이도서관에서는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작가 강연

회, '책이 꿈지락꿈지락' 인형극을 비롯한 체험 행사인 '식물이 자라는 도서관', 추천도서와 보드게임 패키지 가방을 대여하는 '북크닉(책 나들이)', '소중한 나의 책(북 커버 만들기)' 강좌 등을 진행한다.

무등도서관은 유선경 '어른의 지혜', 산수도서관은 한유진 '숲이 될 수 있을까', 상록도서관은 김한솔이 '게을러도 여행은 하고 싶어' 등 작가 강연이 열린다.

각 도서관마다 특색을 살린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사직도서관과 계림꿈나무도서관은 각각 '유기견 영남이', '도서관에서 만나는 동화 인형극'을 공연한다. 일곡도서관은 우

리 가족 맛있는 책 읽기, 장덕도서관은 제8회 도서관 독후화 그리기 대회 등을 연다.

또 9월 한 달 동안 도서관 연체 도서를 반납하면 대출 정지를 해제해 주고, 도서 대출 권수를 두 배로 늘려주는 혜택 등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대표도서관 누리집(https://lib.gwangju.kr)이나 해당 공공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영희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주변에서 열리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독서문화행사에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고 도서관에서 일상 속 문화예술을 향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추석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민관 합동점검반 구성

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3일까지 시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여객시설 등 106곳이다.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광주시, 자치구,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재 대비 소화장비 및 방화구획, 피난시설·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전선배선 볼

량,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전기·기계설 등 유지관리 상태, 전기·소방·가스 등 분야별 법적기준 준수 및 안전성 여부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시설관리주체에 추석 명절 전까지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유치원 급식소 등 1400여곳 위생점검

광주시, 소비기한·보존식 보관 등

광주시 "오는 8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구·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위생점검 계획에 따라 초·중·고교 100곳과 유치원 집단급식소 51곳, 식자재 공급업체 49곳 등 총 2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무표시 원료 사용, 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은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증가에 따라 손씻기 등 노로바이러스 예방법과 행동요령도 지도한다.

시는 이 밖에도 오는 22일까지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189곳에 대해서도 위생 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정신광주시 위생정책과장은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소방, 실화재 훈련으로 현장대응력 강화

전기차 화재진압 훈련도 실시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1월까지 광주소방학교에서 화재진압대원 592명을 대상으로 팀 단위 실화재 훈련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실화재 훈련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화재 진행단계별 화염 발생과 열·연기 움직임을 관찰하고, 화재에 대한 이해 향상 및 효과적 화재진압 방법을 익히는 훈련 방식이다.

주요 훈련내용은 농연 속 인명구조와 공기호흡

기 숙달, 일반화재와 특수화재 대응, 전기차 화재진압 훈련 등이다. 특히 이동식 소화수조와 질식 소화덮개 등을 활용한 전기차 화재진압 훈련도 실시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최근 화재의 규모가 크고 복잡해짐에 따라 진압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팀 단위의 실전 같은 화재진압 훈련으로 현장에 강한 소방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취약계층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

젓병세척제·기저귀 등 5종 대상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와 노약자가 사용하는 취약계층 위생용품에 대해 품질규격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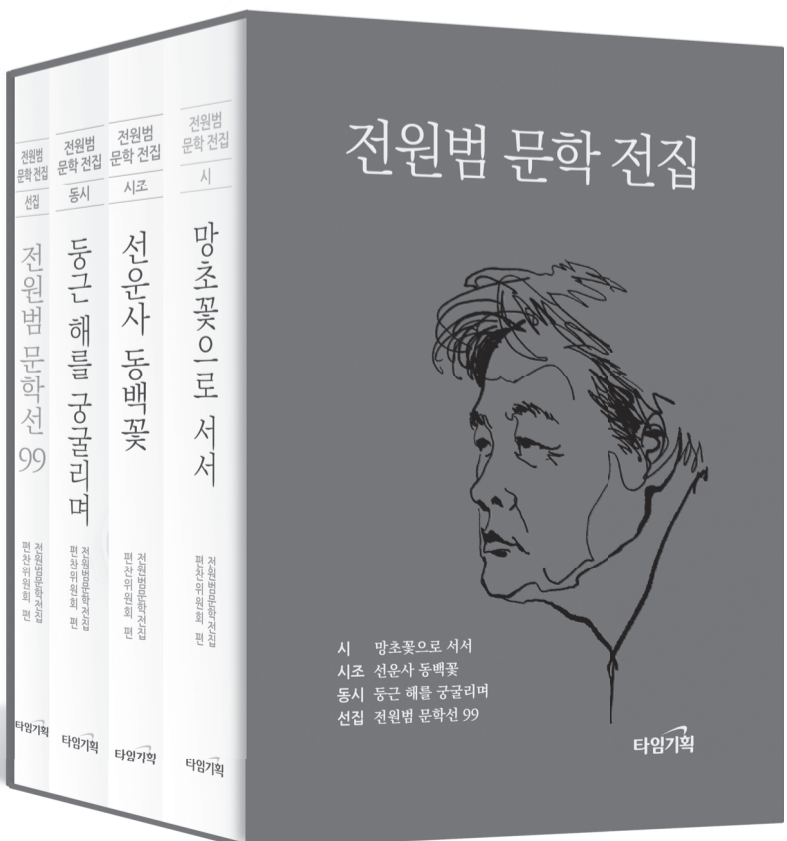
검사 대상은 광주지역 내에서 판매되는 위생용품인 젓병세척제와 어린이용 면봉, 유아용·요실금용·납품용 기저귀 등 5종이다. 검사항목은 위생용품별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중금속과 휘발성 유해성분의 기준 초

과 여부를 검사한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후 부적합 제품에 대해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회수·폐기처분 등 관련부서의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와 노약자가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전검사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라며 "제품의 표시사항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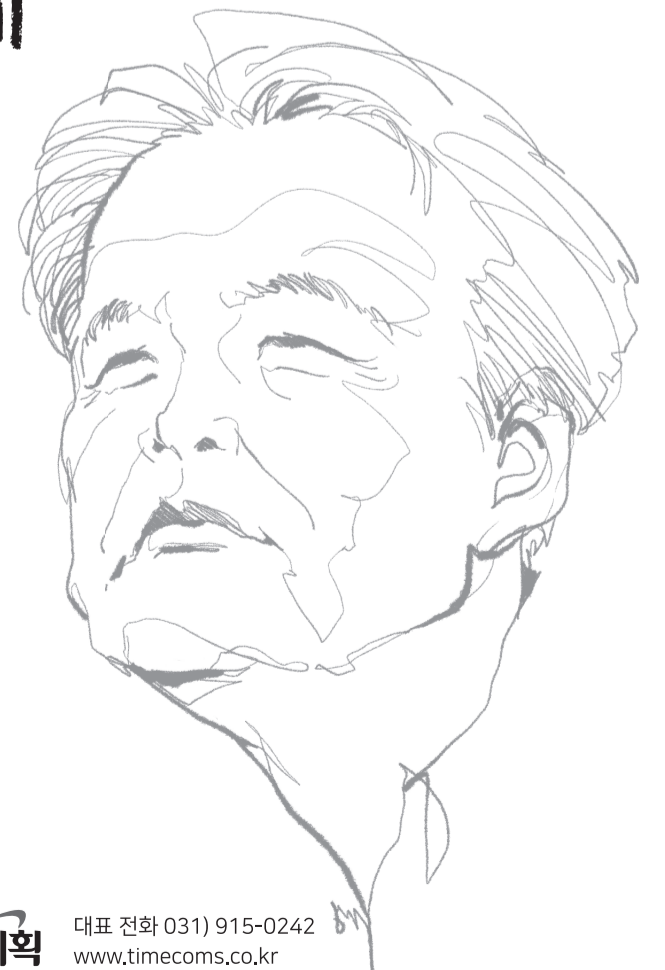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환(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